

어머니의 신념, 어렸을 시 또래관계 및 사회화 전략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

안 선 희

경희대학교 아동·주거학과 강사

본 연구는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과 어머니의 어렸을 시 또래관계가 아동의 사회성을 지도하는 사회화 전략과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신념, 아동기 시절의 또래관계 및 사회화 전략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 실제로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만3세에서 6세사이의 185명의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였으며, 어머니의 신념과 그들의 아동기시절의 또래관계 및 사회화 전략은 어머니용 설문지에 의해 평가되었고,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교사에 의해 측정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대다수의 어머니들이 취학전 아동에게 사회적 기술은 아주 중요하다고 믿고 있었으며, 사회적 기술의 획득 방식에 대한 어머니의 믿음은 아동의 경험, 부모의 가르침, 선천적요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신념, 즉 사회적 기술이 중요하다고 믿거나 그러한 기술은 부모의 가르침에 의해 발달될 수 있다고 믿는 어머니들이 자녀의 사회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화 전략에 더 많이 관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어머니 자신의 아동기때 또래관계에 대한 기억이 현재 자신의 자녀를 위한 사회화 전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기때 사회적으로 유능하였던 것으로 회상하는 어머니들이 아동의 사회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에 더 자주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어머니의 사회화 전략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기술의 향상을 위해 또래관계를 지도해주거나 감독해 주는 등 더 많이 노력하는 어머니들의 자녀가 보다 사회적 유능감이 있는 것으로 교사들에 의해 평가되었다.

핵심어: 어머니의 믿음 · 아동기시절의 또래관계 · 사회화 전략 · 사회적 유능감

아동은 태어나서 최초로는 가족구성원
과, 성장하면서는 또래들과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아동의 초기 또래관계
는 사회적 기술과 유능감의 발달에 영향
을 미친다는 증거가 제시되어왔으며 사회
적 관계를 잘 발달시키는 것은 아동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이자 인생에 있어서 성공의 지표로 간주되어져 왔다(Mills & Rubin, 1990). 사회적 유능감(social competence)은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인간관계나 혹은 심리적인 적응등의 성공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종단연구들은 아동기 시절에 또래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한 아동들은 후에 적응문제의 어려움이나 심리적인 불안을 겪으며 심지어는 학업성적 부진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Hymel, Rubin, Rowden, & LeMare, 1990; Kupersmidt, Coie, & Dodge, 1990; Parker & Asher, 1987).

사회적 역량이나 유능감의 발달은 학업성취나 신체적인 특징(예: 용모)과 같은 여러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Dodge, Coie, & Brakke, 1982) 가족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부모 역할로 인해 아동의 또래관계의 질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졌다(Parke & Ladd, 1992). 이는 아동이 그들의 부모와의 초기 상호작용으로부터 부모들이 보여주는 모델링이나 코치 및 지도를 통해 사회적 기술을 배우기 때문으로 본다. 그동안 초기 또래관계가 후의 사회적 경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하에 많은 연구자들이 가족이라는 체계와 아동의 또래관계의 체계를 연결시켜 아동의 사회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결과 부모의 아동과의 상호작용방식(Putallaz, 1987)이나 일반적인 부모행동(Hart, Ladd, & Burlison, 1990)등이 또래들 사이에서 사회적 유능감(혹은 사회적 역량)이나 사회적 지위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의 행동과 아동의 또래 유능감(peer competence)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Parke와 그의 동료들은(1988)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인 두개의 경로를 제시하였는데, 비간접적인 경로(indirect pathway)는 아동의 또래와의 관계를 향상시키고 수정하려는 명백한 목표를 가지는 않는 부모의 행동으로, 주로 부모-자녀간의 애착이나 양육방식등이 그것에 속한다. 비록 부모가 아동의 사회성을 향상시키려고 명시적으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아동의 원만한 또래와의 관계는 긍정적인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생긴 다른 목표의 부수적인 산물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면, 직접적인 경로(direct pathway)는 아동의 사회적 기술이나 또래관계를 촉진하는 부모의 노력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이는 아동의 또래와의 관계를 감독, 준비, 관리, 조직하는 부모의 행동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제시된 두 개의 경로 중에서 과거의 많은 연구들은 주로 일반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훈육방식, 애착등의 비간접적인 부모의 영향력에 치중해왔다는 지적과 함께 아동의 사회적 기술의 발달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거나 촉진시키는 목표를 가지며 감독자 혹은 관리자로서의 부모역할을 연구할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진행된 일련의 연구들은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제하거나 지도, 관리하는 부모의 노력이 아동의 사회적 역량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들을 제시하였다(Bhavnagi, 1987; Ladd & Golter, 1988; Ladd & Hart, 1992; Russell & Finnie, 1990). 이들 연구는 자녀에게 다른 아동과 상호

작용할 기회를 제공해주거나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직접 가르치거나 또래관계를 감독하고 지도를 한 부모의 아동이 또래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유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아동의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한 부모의 사회화 전략은 자신의 인지체계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과거 부모-자녀관계 연구가 부모의 인지영역보다는 행동영역에 배타적으로 집중되어 왔다는 비판과 아울러 최근에는 부모의 인지적 영역에 관심이 집중되어 부모의 사회인지(social cognition)와 아동 발달과의 연구가 이루어져왔다(Goodnow, 1988; Knight & Goodnow, 1988; Melson, Ladd, & Hsu, 1993). 부모의 인지와 아동의 발달과의 이러한 관련은 부모가 아동의 발달에 대해 가지는 신념이나 아이디어가 양육방식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만일 부모가 자녀의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행동의 원인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향때문이라고 믿는다면 그러한 믿음은 자녀의 행동에 부모가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만일 어머니가 사회적 기술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이러한 기술이 천부적인 특성의 결과라고 믿는다면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효과적인 사회적 기술을 가르칠 노력을 덜 하게 된다는 것이다(Mize, Smith, & Brown, 1995). 이와같이, 부모의 자녀와의 상호작용은 아동발달에 관한 부모 자신의 신념, 아이디어, 혹은 지식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을 사회적으로 유능하게 키우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수행하는 부모의 직접적인 노력은 어머니의 인지와도 관련이 있지만 어머니 자신의 어렸을적 또래관계에 대한 기억이 어머니의 양육의도나 양육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Putallaz, Costanzo, & Smith, 1991). 즉 부모가 자신의 아동기의 경험을 인지적으로 구조화하거나 조직화하는 방식이 아동을 보는 견해와 아동을 양육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진행된 Putallaz와 그의 동료들(1991)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기의 또래관계를 걱정스러운것으로나 외로웠다고 회상하는 어머니들이 절대적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회상한 어머니에 비해 자녀의 사회성발달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취하고 또래관계를 지도하는데 더 많이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Cohen과 Woody(1991)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아동기때 자신을 사회적으로 유능하지 못하였거나 위축되었다고 평가한 어머니들이 자녀의 사회적 생활을 더 준비해주거나 지도해주었다고 한다. 이와같은 연구는 어머니 자신이 가졌던 아동기 시절의 또래관계의 경험이 자녀의 사회성을 지도하는데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부모는 개인과 가족의 경험, 성격, 아동의 특징과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와 준거 집단을 기초로 자신만의 양육 이론을 발달시킨다고 한다(Julian, McKenry, & McKelvey, 1994). 부모가 아동과 가지는 상호작용은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다양하며 특히 부모의 신념은 문화적인 규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문화적인 상황은 부모가 아동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나 양육의 목표 혹은 가치에 영향을 주게 되어 (Okagaki & Divecha, 1993), 다른 문화적인 전통을 가진 부모는 아동을 양육함에 따라 다른 측면의 유능감을 강조한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오늘날의 우리사회에서 자녀에게 인지적이고 학문적인 성취를 무엇보다도 강조해 온 현실에서 부모들이 아동의 사회성에 두는 비중은 어떠하며, 사회적 기술은 어떻게 발달된다고 믿고 있는지 그들의 생각이나 신념을 알아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비록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가정밖에서 또래와 잘 지내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부모는 어떤 종류의 전략이 아동을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만드는지에 관한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돕기 위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머니의 관련변인을 탐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과 어머니 자신의 아동기때 또래관계에 대한 기억이 현재의 자녀의 사회성을 위한 사회화 전략과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 어머니의 사회화 전략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며 이러한 목적하에 제기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 및 어렸을 시 또래관계는 어머니의 사회화 전략과 관계가 있는가?

2.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 어렸을시 또래관계 및 사회화 전략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 관계가 있는가?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만 3세에서 6세 (Range= 44~81개월, M= 63.09 개월) 까지의 아동과 이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은 총 185명으로 남아가 95명, 여아가 90명이 포함되었다. 출생순위를 살펴보면 첫째아가 110명으로 전체아동의 59.5%를 차지하였으며 이중 27명이 외동이였다. 둘째아는 70명(37.8%)이었으며 셋째아와 다섯째아가 각각 3명, 1명이였다.

어머니의 연령은 만 27세에서 46세로 분포되어 있으며, 20대말과 30대 초반에 해당되는 어머니가 141명으로 전체의 76.2%를 차지했다. 40대 이상인 어머니도 6명이 포함되었다. 어머니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졸이하인 경우가 78명 (42.2%),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이 89명 (48.1%), 대학원 졸업자가 16명(8.6%) 등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 참여한 대다수의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나타났으며 (68.6%) 나머지 31.4%에 해당되는 어머니는 가정밖에서 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로는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 및 어렸을 시 또래관계와 자녀의 사회성을 발

달시키기 위해 어머니가 하는 사회화 전략의 측정도구를 포함하는 어머니용 설문지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교사용 설문지로 되어 있다. 각각의 측정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용 설문지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은 Mize와 그의 동료들(Mize, Pettit, & Brown, 1995)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되었다. 이 설문지는 아동의 사회성에 관련된 여러 기술에 관해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0문항 중에 사회적 기술에 관한 6문항과 비사회적 기술에 관한 4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비사회적 기술(예: 인지발달과 신체발달 측면)에 관한 문항은 연구의 목적을 위장하기 위하여 포함되어졌으며 분석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척도로서 "매우 중요하다(5점)"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로 되어 있으며, 6문항을 합산한 총점이 높을수록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을 높게 두는 것을 의미한다. Mize와 그의 동료들(1995)이 보고한 Cronbach의 Alpha는 .64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산출된 신뢰도는 .73이었다.

사회적 기술이 획득되는 방식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

사회적 기술이 어떻게 획득되는지에 관

한 어머니의 신념이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Mize와 그의 동료들(1995)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4개의 사회성영역(예: 친구사귀기, 의견불일치 해결하기, 또래사이에서 리더쉽 발휘하기, 또래들의 반응에 민감하기)에 관한 8개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측정도구 역시 연구의 목적을 위장하기 위해 사회성과 관련이 없는 인지적이거나 신체 운동영역에 관련된 6가지의 스토리가 포함되었으며 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어머니들은 각문항에 기술된 스토리를 읽은 후에 그 행동을 설명하는 원인을 제시한 예문에 대해 가장 그럴듯한 것에서부터 그렇지 않은 것의 순위를 기입하도록 되어있다. 예문에는 있을 수 있는 3가지의 설명이 주어졌다; ①선천적으로 타고난 특징으로 설명하는 것(선천적), ②부모의 직접적인 가르침의 결과로 설명하는 것(가르침), ③일반적인 경험으로 설명하는 것(경험). 예를 들어, "철이는 제 또래에 비해 남을 잘 배려할 줄 압니다. 다른 아이에게 자신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도 하고 친구들이 속상해 할 때도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철이는 어떻게 해서 남을 배려할 줄 알게 되었을까요?" 라는 문항에 어머니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예문에 대해 순서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①원래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에 민감한 아이다. ②부모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도록 가르쳤다. ③남을 도와주거나 또는 놀이감을 나눠가져야 하는 상황이 많았다.

어머니들이 응답한 순위를 기준으로 총 8문항의 응답을 합산하여 3가지 하위영역

(가르침, 경험, 선천적요인)에 대한 각각의 점수가 산출되었다. Mize등(1995)이 보고한 각 하위영역에 대한 내적 합치도는 가르침 요인이 .76, 경험요인이 .71, 선천적요인이 .87이며, 본 연구를 통해 산출된 신뢰도는 .71, .66, .82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아동기 시절의 또래관계

어머니 자신의 아동기의 또래관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Putallaz등(Putallaz, Costanzo, & Smith, 1991)이 개발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원 설문지에서는 9문항으로 구성된 내용을 응답자가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12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으며 문항의 내용은 원저자가 사용하였던 것과 동일하다(문항의 예: 또래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다; 혼자서 노는 것을 좋아하였다; 말다툼이나 싸움을 잘하였다 등).

7점 리커트 척도(매우 그렇다①~전혀 그렇지 않다⑦)에 따라서 각 문항에 대해 어머니로 하여금 아동기 시절의 또래관계를 회상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사회적 유능감을 나타내는 문항은 역산되어졌으며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아동기 시절의 또래관계가 유능함을 의미한다. Putallaz등(1991)이 보고한 신뢰도 계수는 .87이었으며 이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는 .65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사회화 전략

아동의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거나 또래관계를 잘 형성시키기 위하여 어머니가 어느정도로 노력을 하며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Cohen(1989)이 개발한 Parental Involvement Checklist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어머니가 자녀의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를 촉진시키기 위해 참여하고 있는 활동들의 빈도를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총 27 문항인 이 설문지는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해 조언과 지지(Advice & Support), 높은 관심과 참여(High-concern & Involvement), 구체적인 활동을 조직 또는 준비(Orchestration), 그리고 감독(Monitoring)등의 활동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머니는 각각의 문항을 읽은 후 그 문항에 대해 지난 한달 동안 행한 빈도에 대해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반응척도는 6점 척도로서 "전혀하지 않았다(1점)"에서 "한주에 여러번(6점)"으로 되어 있으며 합산한 총점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성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의미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의 Alpha는 .92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내적 합치도를 보여주었다.

교사용 설문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Social Competence)을 측정하기 위해 Ladd와 Profilet(1996)가 최근 개발한 The Child Behavior Scale이 사용되었다. 59문항으로 구성된 이 측정도구는 Ladd와 Profilet(1996)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그동안 많이 사용되어온 CBQ(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와 PBQ(Preschool Behavior Questionnaire)를 수정 보완하여 개발한, 교사가 평정하는 척도이다. 이 척도는 또래와 공격적인 행동, 또래와 친

사회적인 행동, 3가지 타입의 움츠러든 행동(Asocial with peers, Excluded by peers, and Anxious-fearful behavior)과 주의산만한 행동(Hyperactive-Distractible)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는 각 문항을 읽고 평가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 3점 반응척도(1= 아동은 이러한 행동을 거의 보여 주지 않는다. 2= 때때로 이러한 행동을 한다. 3= 자주 이러한 행동을 한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친사회성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은 역산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들 사이에서 사회적 유능감이 있음을 의미한다. 원저자들이 보고한 Cronbach의 Alpha는 .77 ~ .96이며, 이 연구를 통해 산출된 신뢰도는 .92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무작위표집이라기 보다는 임의표집에 의해 진행되었다. 지역에 따른 사회적 계층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강남과 강북에 위치한 유치원 3곳과 어린이집 1곳을 임의적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연구에 사용된 모든 설문지가 연구자에 의해 번역된 후 아동학 전공자 4명과 함께 각 문항의 내용이 문화적으로 타당한지를 검토하였다. 특히, 짧은 문장이나 혹은 한 개의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어 의미전달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된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측정도구에 대한 문항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문항의 내용이 다소 수정된 후 본조사에 사용되었다.

어머니용과 교사용 설문지는 교사에게 전달되었으며 어머니용 설문지는 다시 아동을 통해 어머니에게 전달된 후 회수되었다. 교사들은 연구의 목적과 측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관한 설문지를 응답하였다. 설문지는 배부된 후 약 10일 후에 회수되었으며 총 253부 중에서 회수되지 않았거나 부실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한 총 185부가 결과 분석에 사용되었다.

결과 및 논의

본 분석에 앞서 이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분포를 파악해 본 다음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았다.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관한 부모의 신념 및 사회화 전략의 전반적 경향

먼저,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이 아동의 사회적 기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평균이 26.06 (Range 6-30)으로 나타나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중요성을 상당히 높게 두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 분석에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연구의 목적을 숨기기 위해 포함된 문항중에서 "취학전 아동이 숫자를 세거나 기초적인 산수지식(덧셈이나 뺄셈)을 배우고 한글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십니까?"의 문항에 대한 평균이 가장 낮게 나와 어머니들은 취학전 아동에게 학문적인 기초보다는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는 것에 보다 비중을 높게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미국의

자료(Mize et al., 1995)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 참여한 한국의 어머니가 미국의 어머니들보다도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자녀의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을 더 높게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기술이 어떻게 발달되는지에 관한 어머니들의 믿음을 살펴본 결과, 세가지 요인중에 경험적 요인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나 사회적 기술은 선천적인 요소나 직접적인 가르침보다는 아동이 생활하면서 갖게 되는 여러 경험에 의해 발달된다는 것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Mize(1995)의 연구에서도 경험적 요인의 순위가 가장 높아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1차적으로 두는 원인이 서로 같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두 연구결과에 의하면 어머니들은 사회적 기술의 발달은 유전적인 요소보다는 아동의 경험이나 부모의 가르침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달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환경주의자의 입장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아동의 사회적 기술의 발달을 돕기 위해 어머니들이 행한 사회화 전략중에서 어떤 활동을 빈번히 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 보았다. 가장 빈번히 하는 활동으로는 "자녀가 친구에 대해 얘기를 먼저 시작했을 때 받아준다", "자녀에게 유치원에서 또래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 본다", "자녀가 어떤 친구들과 노는지 어디에서 노는지 감독하고 있다"등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여러번" 한다고 응답한 어머니가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의 친구를

식사시간에 초대하거나, 자녀와 비슷한 또래가 있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계획을 세운다거나, 자녀가 친구들과 함께 놀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친구의 어머니와 계획을 세운적이 있는냐를 묻는 문항에는 "적어도 일주일에 여러번"이라고 응답한 어머니가 10%이하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친구관계 문제로 아동전문가와 상의한적이 있는냐는 문항에 대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사회화 전략중에서 자녀의 또래관계를 걱정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놀도록 격려해주는 등의 조언과 지지영역에 속하는 활동과 또래관계를 감독/추적하는 활동은 빈번히 하는 반면, 자녀의 또래관계를 직·간접적으로 관리/준비해주고 참여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음을 제시한다.

표 1.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 수	평 균	표준 편차
어머니의 신념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	26.06	3.01
사회적 기술의 획득방식		
선천적	15.23	4.12
경험	17.53	3.01
교육	15.25	3.13
어머니의 어렸을시 또래관계	41.38	8.36
어머니의 사회적 전략	91.95	24.32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82.91	14.26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

어머니의 신념 및 어렸을 시 또래관계와 사회화 전략과의 관계

사회적 기술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과 자신의 아동기 시절의 또래관계가 실제로 그들의 사회화 전략과 관련이 있는지 상관관계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표 2>에서 제시하듯이,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r = .17, p < .05$) 및 사회적 기술의 획득방식 중에서도 부모의 가르침 요인($r = .24, p < .01$)이 사회화 전략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어머니가 회상한 자신의 아동기 시절의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와 자녀의 사회성의 발달을 돕기 위해 수행하는 사회화 전략과도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 = .18, p < .05$).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아동의 사회적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머니일수록, 자녀의 사회적 기술이 부모의 직접적인 가르침에 의해 수정되고 발달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어머니일수록 자녀의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에 더 많이 참여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에게 사회적 기술이 중요하며 이러한 기술은 부모의 노력에 의해 향상될 수 있다는 믿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사회적 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활동에 더 빈번하게 참여하며 더 노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사회성을 위해 수행하는 어머니의 사회화 전략은 자신의 신념이나 생각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어머니들이 아동의 사회성에 가치를 더 많이 부여하

거나 책임을 느끼는 어머니일수록 자녀의 또래관계를 촉진하는데 더 많이 관여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Cohen, 1989; Cohen & Woody, 1991; Mills & Rubin, 1990)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취학전 아동에게 사회적 기술이 중요하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고 믿는 어머니들이 아동의 사회적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더 효과적인 지도와 감독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아동기 시절의 또래관계에 대한 회상과 사회화 전략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어, 또래관계가 유능하였다고 보고한 어머니일수록 자녀의 사회성을 위해 더 자주 지도하거나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의 또래경험에 대해 불안/걱정스러운 것으로 기억하거나 위축되었다고 보고한 어머니가 자녀의 사회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Cohen & Woody, 1991; Putallaz et al., 1991)의 결과와는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 비교가 용이하지 않지만, 선행연구의 결과처럼 어렸을 적에 또래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했다고 기억하는 어머니는 자녀가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생각에서 사회성 발달에 더 관심을 가지며 노력할 수도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처럼 어렸을 적에 또래와 사이가 좋았다고 회상하는 어머니는 유년기 시절에 가진 또래경험의 결과가 주는 중요성을 인식하며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그들의 사회적 생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

석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아동기의 또래 경험과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후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회적 기술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 아동기 시절의 또래관계 및 사회화 전략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

사회적 기술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 아동기 시절의 또래관계 및 사회화 전략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그결과, 어머니가 자녀의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에서만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 = .23, p < .01$)가 나타나, 어머니가 자녀의 사회성을 발달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할수록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자녀의 사회성을 향상시키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행한 어머니의 직접

적인 행동이 아동의 사회성과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한 여러 선행연구와도 일치됨을 보여준다(Bhavnagri, 1988; Bullock, 1989; Ladd & Hart, 1992).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또래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어떤 전략을 충고해 주거나 방향등을 설정해줌으로써 자녀가 가정 밖에서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성공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는 Ladd(1992)가 주장하듯이, 가족의 역할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해 주는 결과라 볼 수 있겠다. 그동안 진행된 아동의 사회성에 관한 연구에서 Parke(1988)가 제시한 두 체계중 간접적인 경로에 속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나 애착 등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자녀의 사회적 기술을 키워주기 위한 부모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노력도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표 2. 어머니의 신념, 어렸을 시 또래관계 및 사회화 전략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

변 수	사회적기술 의 중요성	선천적	경험	가르침	어렸을 시 또래관계	사회화 전략	사회적 유능감
어머니의 신념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	1.00	-.10	-.02	-.15	.09	.17*	-.11
사회적 기술의 획득방식							
선천적		1.00	-.64*	-.69*	-.09	-.11	.00
경험			1.00	-.11	-.00	-.08	-.06
가르침				1.00	.13	.24**	.04
어머니의 어렸을시 또래관계					1.00	.18*	.02
어머니의 사회적 전략						1.00	.23**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1.00

* $p < .05$, ** $p < .01$

한편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의 신념 및 어렸을 시 또래 관계의 질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관한 중요성이나 획득방식에 따른 어머니의 신념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 관련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아동의 어머니들은 사회적 기술의 발달에 가치를 덜 부여하는 반면 이러한 기술에 많은 중요성을 둔 어머니들의 자녀가 또래사이에서 사회적 유능감이 더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Cohen & Woody, 1991; Rubin, Mills, & Rose-Krasnor, 1989).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취학전 아동에게 있어서 사회적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또는 그러한 기술이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자체가 직접적으로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 관련되기 보다는 사회적 기술을 지도하거나 감독하는 등, 어머니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이 연구에 사용된 어머니변수를 중심으로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예측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서는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에 관한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어렸을적 또래관계 및 사회화 전략이 사용되었다. 사회적 기술의 획득방식에 관한 어머니의 믿음은 반응 범주간에 상관관계가 높아 다중선공성 문제로 독립변수에서 제외되었다.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어머니의 사회화 전략($\beta = .27$), 사회적 기술의 중

요성에 관한 어머니의 믿음($\beta = -.18$)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며 설명력은 8%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자녀의 사회성 증진을 위해 많이 노력할수록,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을 크게 두지 않을수록 유치원에서 아동의 또래간의 유능감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요약 및 결론

사회적 기술은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할 중요한 기술이며 이러한 기술의 발달은 아동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의 하나로 간주되어왔다. 부모-자녀간의 관계가 또래간 유능감이나 사회적 기술의 발달을 돕기 위한 중요한 변수임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는 아동의 또래관계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과 어머니의 아동기때 또래관계가 아동의 사회성을 지도하는 사회화 전략과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신념, 어렸을 시 또래관계 및 사회화 전략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 실제로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하에 진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다수의 어머니들이 취학전 아동에게 사회적 기술은 아주 중요하다고 믿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어머니들은 아동의 사회성에 크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기술의 획득방식에 대한 어머니의 믿음은 경험, 부모의 가르침, 선천적요인의 순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사회적 기술의 획득을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특성으로 보기 보다

는 아동이 갖는 경험이나 부모의 직접적인 가르침등의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 발달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어머니의 사회화 전략은 자녀의 또래관계를 걱정해 주거나, 친구들과 함께 놀도록 격려해주는 등의 조언/지지영역으로 속하는 활동과 또래관계를 감독/추적하는 활동은 빈번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의 또래관계를 직접적으로 관리/준비해주거나 실제로 참여하는 활동에 대한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아 어머니들이 이러한 영역에 관련된 활동에는 그다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신념 즉, 사회적 기술이 중요하다고 믿거나 그러한 기술이 부모의 가르침에 의해 발달될 수 있다고 믿는 어머니들이 자녀의 사회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화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머니가 아동의 사회적 기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거나 사회적 기술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나 모델등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발달되고 수정될 수 있다는 믿음이 어머니로 하여금 자녀의 이러한 기술의 향상을 위해 보다 더 노력하게끔 만드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 자신의 아동기 또래관계가 현재 자신의 자녀를 위한 사회화 전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기때 사회적으로 유능하였던 것으로 회상하는 어머니들이 아동의 사회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에 더 자주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어머니의 사회화 전략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측한대로 사회적 기술의 향상을

위해 또래관계를 지도/감독해 주며 노력하는 어머니들의 자녀가 사회적 유능감이 있는 것으로 교사들에 의해 평가되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신념 및 그들의 아동기때의 또래관계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향상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겠다. 아동의 사회적 행동이 초기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될 수 있다는 결론에 따라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유아교육기관등에서 실시되는 자모회를 통하여 부모의 신념이나 행동이 수정된다면 아동의 발달을 최적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아동의 사회적 기술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모의 효과적인 사회화 전략을 통하여 아동의 또래간의 관계를 지도하거나 관여한다면 보다 긍정적으로 또래관계의 질을 발달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특히 부모들이 아동의 삶에 깊이 관여하는 한국사회에서는 부모들이 자녀의 사회성발달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할 경우 보다 많은 이점이 있을 수 있다고 기대된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신념, 어렸을 시 또래관계 및 사회화 전략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파악해보았으나, 연구의 방향이 일방적이었다는 제한점이 따를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신념이나 행동을 설명하는데 아동의 역할이 무시되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사회화 전략은 그들이 가지는 신념에 근거하므로 아동의 사회적 기술이 중

요하다고 믿을 경우 어머니들이 사회화 전략을 더 빈번하게 수행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노력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 정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다시말해,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를 사회적으로 유능하다고 지각한다면 사회성을 발달시키려는 활동에 크게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인식하는 어머니의 지각(perception)이라는 변수를 포함시킨다면 보다 정확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제한점에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의 사회성과 어머니변인들의 분석을 통해 어머니가 가지는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부여하는 가치정도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사회적 기술의 획득 방식에 대한 어머니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사회적 기술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과 아동기때 사회성의 정도와 사회화 전략과는 관련이 있고 또한 사회화 전략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도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돕기 위한 부모의 사회적 전략을 지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Bhavnagi, N. P. (1987). *Parent as facilitators of preschool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Champaign-Urbana, IL.
- Bullock, J. R. (1989).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management of peer interactio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 263-269.
- Cohen, J. S. (1989). *Maternal Involvement in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during middle childhoo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terloo, Waterloo, Ontario, Canada.
- Cohen, J. S., & Woody, E. (1991). *Maternal involvement in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The contributions of mothers' experiences, values and beliefs*.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eattle, WA.
- Dodge, K. A., Coie, J. D., & Brakke, N. P. (1982). Behavior patterns of socially rejected and neglected preadolescent: The roles of social approach and agg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0, 389-410.
- Goonow, J. J. (1988). Parents' ideas, actions, and feelings: Models and methods from developmental and social psychology. *Child Development*, 59, 286-320.
- Hart, C. H., Ladd, G. W., & Burleson, B. R. (1990). Children's expectations of the outcomes of social strategies: Relations with sociometric status and maternal disciplinary styles. *Child Development*, 61, 127-137.

- Hymel, S., Rubin, K. H., Rowden, L., & LeMare, L. (1990).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Longitudinal prediction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from middle to lat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 2004-2021.
- Julian, T. W., McKenry, P. C., & McKelvey, M. W. (1994). Cultural variations in parenting: Perceptions of Caucasian, African-American, Hispanic, and Asian-American parents. *Family Relations, 43*, 30-37.
- Ladd, G. W. (1992). Family-peer relations during childhood: Pathways to competence and patholog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307-314.
- Ladd, G. W., & Golter, B. S. (1988). Parents' management of preschooler's peer relations: Is it related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4*, 109-117.
- Ladd, G. W., & Hart, C. H. (1992). Creating informal play opportunities: Are parents' and preschoolers' initiations related to children's competence with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1179-1187.
- Ladd, G. W., & Profilet, S. M. (1996). The child behavior scale: A teacher-report measure of young children's aggressive, withdrawn, and prosocial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42*, 267-294.
- Knight, R. A., & Goodnow, J. J. (1988). Parent's beliefs about influence over cognitive and social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1*, 517-527.
- Kupersmidt, J. B., Coie, J. D., & Dodge, K. A. (1990). The role of poor peer relationships in the development of disorder.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 274-305).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elson, G. F., Ladd, G. W., & Hsu, H. C. (1993). Maternal support networks, maternal cognition, and young children's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4*, 1401-1417.
- Mills, R. L., & Rubin, K. H. (1990). Parental beliefs about problematic social behavior in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 138-151.
- Mize, J., Pettit, G. S., & Brown, E. G. (1995). Mothers' supervision of their children's peer play: Relations with beliefs, perception, and knowledge. *Developmental Psychology, 31*, 311-321.
- Okagaki, L., & Divecha, D. J. (1993). Development of parental beliefs. In T. Luster & L. Okagaki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pp.35-68). Hillsdale, NY: Erlbaum.
- Parke, D., & Ladd, G. W. (1992). *Family-peer relationships: Modes*

- of linkages. Hillsdale, NJ: Erlbaum.
- Parke, D., Neville, B., Burks, V. M., Boyum, L. A., & Carson, J. L. (1988). Family-peer relationships: A tripartite model. In R. D. Parke & S. G. Kellam (Eds.), *Exploring family relationships with other social contexts* (pp. 115-145). Hillsdale, NJ: Erlbaum.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acceptance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utallaz, M. (1987). Maternal behavior and children's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58, 324-340.
- Putallaz, M., Costanzo, P. R., & Klein, T. P. (1993). Parental childhood social experiences and their effects on children's relationships. In S. Duck (Ed.), *Learning about relationships* (pp. 63-97). Newbury Park, CA: Sage.
- Putallaz, M., Costanzo, P. R., & Smith, R. B. (1991). Maternal recollections of childhood peer relationships: Implications for their children's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403-422.
- Rubin, K. H., Mills, R. S. L., & Rose-Krasnor, L. (1989). Maternal beliefs and children's competence. In B. H. Schneider, G. Attili, J. Nadel, & R. P. Weissberg (Eds.), *Social competence in developmental perspective*. Dordrecht, Netherlands: Kluwer Academic.
- Russell, A., & Finnie, V. (1990). Preschool children's social status and maternal instructions to assist group entry. *Developmental Psychology*, 25, 603-611.

Maternal beliefs, maternal recollections of childhood peer relationships, mothers' socialization strategie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Sun-Hee Ahn

Dept. of Housing, Child, & Family Studies, Instructor
Kyung hee Univ.

Ahn, Sun-Hee. Maternal Beliefs, Maternal Recollections of childhood Peer Relationships, Mother's Socialization Strategie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1998, 5, 48~62.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inks between the family and peer systems by examining whether mother's beliefs about social skills, maternal recollections of childhood peer relationships, mother's socialization strategies of peer interactions were related to their children's social relations with peers. The sample was comprised of 185 Korean mothers of preschool children, ranging in age from 44 to 81 months. The findings suggested that most mothers in this sample highly rated the importance of preschoolers' social skills. They believed that social skills were amenable to modification, rather than innate.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mothers who assigned greater importance to social skills and believed that the social skills of their children could be obtained by direct parental teaching were more likely to manage their children's social activities. In addition, mothers with good peer recollections appeared to take the most active role in their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Mothers who made more efforts to enhance their children's social skills were more likely to have socially competent children with peers.

Key words: Maternal beliefs · Memories of mothers' childhood peer relationships · Mothers' socialization strategies · Social competence

Sun-Hee Ahn

Department of Housing, Child, &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Hoegi-dong 1 Dongdaemoon-gu

Seoul, 130-070 Korea